

해양 의례의 상징과 지속적 생활권리

: 한·일 두 지역 잠수(潛嫂)와 어사(漁師)들의 생업을 중심으로¹⁾

안미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1. 해양 어로문화에 대한 한 시각: 위험 담론을 넘어

해양생태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어민들의 생활세계는 자연환경을 '읽어 온' 축적된 지식체가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어로방식도 이러한 지식이 체계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가는 것은 곧 어민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해양)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해양과 관계를 맺어 온 해양 어로민들의 구체적 생활세계와는 별도로 해양세계를 둘러싼 여러 담론들과 이미지의 재현이 존재하며, 이것 또한 해양세계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양세계를 둘러싸고 구축된 담론과 이미지들은 실제성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양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해양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틀을 제공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바다(시선, 관점)와 관념하는 바다(상징, 재현, 인식틀), 그리고 살아가는 바다(터전, 생활세계)는 엄격한 의미에서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삼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섬들은 한 국가의 영토적 변경이자 정치적 변방으로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되어 온 지역이었다. 봉건왕조시대 동안, 정치적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섬은 정치적 인물들을 감시하고 연금시키는 유배지가 되어 왔다. 그 외에도 대개의 섬들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기르는 목마장으로 기능해 왔다. 정치적 측면에서 섬의 역할은 지배왕조의 정치적 감옥이거나 왕조의 경제적 수요를 담당하는 배후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섬 역사 속에는 왕조체제를 떠받치도록 강제되어 온 정치경제학이 깊이 배여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섬을 하나의 해양문화가 형성되어 온 생활공간, 혹은 해양어로민들이 형성하여 온 생활세계로서의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깊게 작용해 왔다. 곧잘 섬사람들의 기질을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바라보는 한편의 시선에는 섬의 지배왕조에 의해 양산되어 온 정치경제학과 온전하게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담론을 지지해주는 일반적 근거가 바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섬의 생태학적 조건에서 찾아진다. 이때의 바다란 자유로운 왕래를 차단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적어도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간주됨을 말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바다에 대한 인식은 바다의 물리적 특성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만들어져 온 사회적 구성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 섬의 문화, 해양어로민들의 문화는 섬이라는 혹은 바다에 면해 있다는 물리적 조건을 사회구조와 문화적

1) 이 발표문은 2009년 5월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발표하였던 <바다밭과 방어사냥>(2009.5.29~3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과 일부 내용이 겹치며, 다만 금번 학술대회의 취지에 맞추어 추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특성을 밝힘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문화형성 주체의 내부자적 시각을 드러내지 못하고서는 그 문화의 깊은 해석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민들의 신앙과 협동 양식도 바다의 위험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혹은 적응이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어민사회는 오랜 유습에 매여 있는 사회로 비춰지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과 여러 어로 사회에 대한 연구는 자원의 이용과 분배, 사회조직의 다양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한규설 1993, 1996; 아키미치 2005; Han 1976; 韓相福 1991), 어촌 사회의 생태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함이 없이 농(어)촌 '마을'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었던것들은 농경의 부수적이거나 혹은 대비되는 생업으로써 조망되어 왔다(전경수 편 1992: 3). 어촌은 인간과 자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농촌과 다름이 지적되어 왔다(한상복 1976). 이외에도 해양어로문화에 대한 다양한 민족지와 민속학의 연구보고들은 바다가 '조상신'으로 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로는 농를 단순히 위험한 곳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농를 자신들의 조상신으로 섬겨진다는 것은 바다가 위험해서조망되만이 왔다가 풍요로운 조상의 세계로서 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왔었던 해양신화 속의 신들은 친족 계보를 형성하며 주민과 조상신의 관계 맺는 방식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이처럼 해양 신화와 의례들은 바다에 친족 관념과 성스러움을 투사하기도 하여 신화적, 역사적, 사회적 공간으로 형성시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다에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처럼 불확실한 어로의 특성은 신에게 의탁함으로써 풍요를 기대하는 면이 있으나, 어민들의 의례를 단지 바다에 대한 공포와 외경심에 따른 소산으로 보는 것은 종교의 원초적 기원에 따른 한 해석인 것이다.

어로사회를 보는 또 하나의 지배적 담론은 어민의 사회를 단단한 공동체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어촌의 마을어장(연안바다, 로컬 커먼즈, 前 수산업법상 1종 공동어장)으로부터 도출되는데, 마을사람들에게 어장은 서로 공유된 자산으로서 주요 생산토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유지는 어촌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민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하는 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공유지를 가진 집단이 곧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듯이 공유지는 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충분조건인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공유지에 대해 권리를 가진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공동 권리를 사적으로 전유/향유(專有/享有)해가는 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육상의 사유화된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민들의 어장을 둘러싼 관습, 조직, 제도 등은 복잡하기에 농촌사회와 다른 어촌사회의 이러한 면은 개선해야할 문제점이거나 혹은 어민사회를 '저발전'사회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재율 1976, 1996; 한규설, 1993, 1996; 中田 實, 1994). 그리고 어민사회의 갈등과 문화적 변동을 간과하여 오히려 이를 공동체의 붕괴와 문제적 양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도 순수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생업 집단들은 더욱 복잡한 시장경제와 국가의 법적·제도적 영향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집단의 변동은 더욱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해양문화에 있어서 바다의 위험성은 바다를 인식하는 한 시각일뿐이며 이를 해양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해안 마을의 어로자들 사이의 관습과 제도, 불문율 등 다양한 문화적 전통은 비단 어로활동에서 느끼는 위험과 공포에 대한 대응의 방책인 것만이 아니라, 바다라는 공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실천행위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해양의 어로는 호수와 강에서 이루어지는 어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潮流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어민은 농부나 강촌의 어부보다 유동적인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일기변화 등에 더욱 민감한 생업자들이다. 그렇다면 바다의 불예측적 위험성은 해양 어민생활의 어느 범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어민들의 실천적 행위란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위험에 대한 대응/반작용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바다의 생태적 특성은 어로사회의 어떠한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긴밀한 상관성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다양한 어민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여러 해양 어로사회의 연구에서와 같이, 어민들의 주체적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해양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례로서,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은 한-일 두 지역의 어민들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것이다. 양국의 두 지역을 사례로 삼은 것은 비교의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이보다는 우선, 어로의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을 공히 드러내고자 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로 혹은 어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고기잡이 하는 어부를 연상하지만, 실제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함께 어업종사자로 살아간다.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갯마을 여성들이나 연안 수중에서 潛水하여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집하는 제주도 潛嫂들은 대표적인 여성 어로자들이다.²⁾ 일본의 경우에도 제주 잠수와 같은 나잠어로(裸潛漁撈, plain-diving)를 행하는 남녀 아마(海女, 海士, Ama, あま)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宮本常一·中村由信, 1978; 上村角兵衛, 1985; 大喜多甫文 1998). 일본의 태평양에 면해 있는 미에켄 토바시 토우시지마(三重縣 鳥羽市 答志島)는 여성 아마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고기잡이가 마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로, 두 지역의 어로는 ‘해양의 수렵과 채집’으로서 어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다만 밝혀두는 점은 이들의 사례가 여성-채집/남성-사냥이라는 일반적 가설을 전제하여 설정한 구도인 것은 아니다. 본 발표에서 제시하는 한 일 두 지역의 사진 및 통계자료들은 2005년부터 2010년 여름까지 수집한 자료들이며, 제주도는 발표자의 현지연구(2005~2006)와 이후 최근까지의 단기간 방문조사를 토대로 하며, 일본의 토우시지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기간 현지조사 총 4회(2006년 여름, 2008년 12월, 2009년 2월, 2010년 8월)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2. 한-일 두 지역의 어로와 의례

2-1. 潛嫂 마을 김녕리의 어로와 의례 패턴

김녕리는 제주도의 중심 시가지인 제주시로부터 22km 떨어져 있는 북동쪽 해안 마을로,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발표자가 현지조사 한 당시), 마을의 총 인구는 2,505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약 100여명이 더 많았다. 농사만을 짓는 680개의 가구보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어장에 대한 어업권리를 가진 어촌계원의 수(가구수를 의미) 수는 760가구로 더 많았다. 어촌계 산하에는 어부회와 잠수회라는 두 개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마을의 어부들은 8톤 미만의 배로 근해어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배도 25척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마을 여성어로자들인 잠수들은 160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동쪽 잠수회(100명)와 서쪽 잠수회(60명)로 나뉘어 각각의 어장에서 물질을 한다. 고기잡이와 물질 이외에도 마을 안에는 4개의 어류 육상양식장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양식산업의 부흥으로 제주도의 전 연안에 육상양식장이 설립되어 있으나, 김녕리의 4개 육상양식장은 유독

2) 수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어로자를 잠수(潛嫂)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해녀가 아니라 잠수라 함은 발표자의 또 다른 글(안미정 2008)에서 언급한 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설명을 생략한다.

서쪽 김녕리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 해안가에도 설립 예정이었으나 동쪽마을의 잠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동쪽 잠수회는 마을어장의 한 구역을 “자연양식장”으로 구획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채기를 두어 해산물의 산란과 생육을 도모하고 이곳에 전복“씨”를 뿌리는 등 그들이 잡을 해산물의 지속적 재생산을 도모한다. 이때 뿌려지는 씨앗(중패)들은 제주도 수산정책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며, 마을의 잠수들은 이를 그들의 자연양식장에 뿌림으로써 그들이 잡을 해산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흔히 ‘잡을 것이 있어야 물질도 한다.’는 잠수들의 일반적 담화에 비추어 볼 때, 해양자원의 재생산은 잠수 개별가구의 안정적 소득 문제로 직결되며, 나아가 그것은 물질이라는 어로법에 의해 형성되어 온 잠수문화의 지속성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마을의 잠수들은 어로 외에도 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사꾼이기도 하다. 육상과 해양을 오감으로써 생태적으로는 다른 두 개의 장소를 그 자신의 생활세계 속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은 잠수의 생활세계 안에서 볼 때 별개의 분리된 공간이기 보다는 상호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 ppt 설명.)

2-2. 漁師의 마을 答志의 어로와 의례 패턴

토우시지마(答志島)는 미에현 토바시(三重縣 鳥羽市)³⁾의 북동 2.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의 면적은 약 7km(동서 6km, 남북 3km)로 토바만에서는 가장 큰 섬이다. 섬은 높은 구릉이 산처럼 이어져 있어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않으며, 해안가의 조금 평탄한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토바시에서 그다지 먼 곳은 아니지만 이 섬은 이도(離島)지구로 분류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정기선(하루 9편 운항)을 타고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섬에는 3개의 마을이 있는데 桃取(Momotori), 和具(Wagu), 答志(Toushi)로 정기선이 오가는 각 어항 이름에 다름 아니다. 토바시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월말 기준 토바시의 인구는 22,775명이며, 그 가운데 이 섬의 인구는 총 2,712명(남자 1,259명, 여자 1,453명)이다. 섬 인구의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서비스업 종사자가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어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이나마 쌀과 야채를 재배하기도 한다(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2005:1).

答志는 섬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答志의 고령화율은 다른 두 지역보다 낮다. 토바시가 성립된 1954년(소화29년) 당시의 答志町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2009년 答志町의 인구는 900여명이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단 6세대가 감소하였을 뿐이다(鳥羽市總務課廣報係 1999: 9). 또한 答志의 특징은 다른 마을에 비해 어업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가구가 많고, 양식업을 하는 경영체(가구) 수는 적다. 이처럼 비교적 고령화되지 않고 많은 인구가 살수 있는 答志(町)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양식업과 같이 산업화된 분야의 젊은 종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답지의 양식업경영체수는 제일 작다. 또한 토바시(鳥羽市)의 수산 어획고의 추이를 볼 때, 김과 굴, 미역과 같은 양식보다 어패류의 포획과 해초류의 채취에서 더 많은 어획고가 나오고 있는데, 양식업보다는 고기잡이와 아마(海女)들의 어로에 의해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음을 말한다.

3) 미에현에는 있는 이세신궁(伊勢神宮)에는 토바시의 國崎의 해녀들이 전복과 소라를 잡아 신궁에 바쳐왔으며 그 배경은 倭姫命(야마또히메노미코또)가 이 지역을 순력할 때 해녀들이 전복을 잡는 것을 보고 바치게 되었던 데에서 유래한다(森 靖雄, 1994: 45~46). 해안에 위치한 토바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진주양식에 성공한 곳이며 진주를 채취하는 해녀들의 퍼포먼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일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어업생산고와 답지의 낮은 고령화율은 서로 상관성이 있지 않은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답지의 어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면어업을 행하는 여러 개의 조직들이다. 이 지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2005) 고기와 해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취하는 어부들의 여러 그룹을 “업자”(業者)라고 하는데, 각 그룹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회원뿐만 아니라 대표자들도 또 다른 그룹에 속할 수가 있다. 모두 19개의 그룹이 있고, 그 업자들의 이름을 보면, 타찌우오(太刀魚, 갈치), 타코쓰보(たこつぼ, 문어잡이 항아리), 아지쓰리(アジ釣, 전갱이낚시) 키수아미(キス網, 보리멸그물), 에비히꾸(エビ曳, 새우잡이), 후구아미(ふぐ網, 복어그물), 사바쓰리(サバ釣, 고등어낚시), 잇본쓰리(一本釣)⁴⁾, 나마꼬카케(なまこ掛, 해삼걸이), 若布(미역), 海女, 遊漁船 등등이다. 업자의 이름은 잡는 고기와 잡는 방식을 간단히 조합하여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로조직인 업자의 구성원들은 ‘네야코(寢室子)’라는 마을의 오래된 관습에 의해 이어져 온 사회조직에 속해 있다. 네야코란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양친이 있는 집의 한 부분을 빌려서 5-6명이 침숙을 함께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중학교 졸업 후 약 10년간 학교나 일이 없을 때는 함께 잠을 자며 생활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자아이들도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한 네야코의 성원이 되었으나 지금은 남자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집을 빌려주는 네야친(寢屋親)은 네야코와 親子 관계를 형성하며 “義理の孫”, “相談役”이 되어준다. 네야친은 마을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진 남성이다. 이들은 마을 안의 남자아이들을 맡아서 경제적·사회적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네야코의 성원인 남자들 사이에는 형제관계가 성립한다. 이 제도는 이곳 답지에만 남아 있다고 전해지며, 토우시를 지지하고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澤入友美·平山妙子·鄭信智 외 7인, 2005: 84; 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2005: 42~43.). 즉 네야코와 네야친의 관계는 경제적 후원과 돌봄의 관계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전개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다양한 관계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써 마을의 신년 의례 때에 네야코의 한 청년은 의례의 일곱 주인공으로, 그리고 네야친은 의례 진행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었다.(이하 2009년 2월 하치만 마쓰리_ppt 설명).

섬의 海女/海士 인구는 和具 144 명, 答志 129 명, 모모도리(桃取) 10 명이다(澤入友美·平山妙子·鄭信智 외 7인, 2005: 91). 答志의 해녀들은 항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름에는 해녀와 해사(남자)와 딸들도 조업을 하지만 겨울에는 20~30명의 해녀들만이 일하고 있다.⁵⁾ 마을어장에서의 어로 시기는 모두 연간 2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7월 약 15일간과 겨울철 해삼잡이는 일기 관계로 조업일수가 많지 않다. 조업시간은 지역 어협이 정한 규정을 따르며, 채취한 해산물은 어협지소 앞 선착장에서 바로 계량하여 넘겼다. 答志의 아부들은, 배를 타고 인근의 모모도리 혹은 입어권을 구입한 토바나 伊良湖까지 나가 조업을 하므로 1년을 해녀 일을 하며 보낼 수 있다.⁶⁾ 마을어장에서 조업을 하는데 작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일 한 후 점심과 휴식을 취하고 다시 13시부터 15시까지 하여 하루 총 4시간 물질을 하였다. 한 배에 한 海女가 타서 조업을 하므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해녀의 남편이었다. 토우시지마의 세 개 마을마다에는 각각의 어협지소가 있어 마을의 해녀들은 어협지소의 규정에 따라 조업을 행하고 있다.⁷⁾

4) 낚싯줄 하나에 바늘 하나를 달아 오징어 가다랑어 등을 낚는 어로법.

5) 中村初代(58세, 여), 2009년 12월 13일, 答志 록식당에서.

6) (澤入友美, 平山妙子, 鄭信智 외 7인, 2005: 91)

7) 中村初代(58세, 여)와 浜口愛子(68세, 여)의 인터뷰, 2009년 2월 11일, 마쓰리 장소에서.

3. 의례과정과 상징⁸⁾

3-1. 의례과정

- (1) 김녕리의 잠수굿(潛嫂굿/海神祭)
- (2) 답지의 하쓰만 마쓰리(八幡祭)

3-2. 돛자리와 활의 상징적 의미

- (1) 돛자리: 바다밭의 경작
- (2) 활: 남성들의 해양 수렵

4. 관습과 지속적 생활

4-1. 물질과 잠수들의 사회관계

잠수굿이 바다의 신과 잠수들의 신화적 사회관계를 보여준다면, 실제 잠수들 간의 사회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살펴봄으로써 바다밭을 둘러싼 신화적 친족관계의 상징적 의미를 잠수들의 사회관계 맥락 안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잠수들의 사회관계_ppt 설명.)

물질이라는 오래된 어로법은 잠수라는 특정의 어업집단에 의해 이어져 왔으며, 고도의 생산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어로법이 지속되는 까닭은 잠수들의 생활방식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 첫째, "불턱"(탈의장)과 같이 집단적 결속을 이루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모녀와 고부 자매와 고모·이모, 친구, 친목의 구성원 등 중층적으로 엮여있는 사회관계, 셋째 이러한 관계는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공통 분모와 이해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 넷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잠수굿은 바다밭/마을어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례의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잠수굿은 전통의례가 가지는 '오래된 기원성'과 상징화된 신화적 친족관계에 의하여 잠수들의 문화적 정통성을 - 곧 물질로서만이 어로할 수 있고 물질하는 자손이 조상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음을 - 가시화한다. 이와 같이 물질은 잠수들이 마을어장의 집단적 점유 방식인 동시에, 그들이 바다밭을 일구며 영속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실천적 행위들 - 굿의 파종("씨드림")과 어장의 종패사업(전복 "씨"뿌리기)과 자연양식장과 같은 - 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4-2. 방어사냥과 어사들의 네야코

토우시의 네야코는 현재 14개 있으며, 각각의 네야코의 구성원들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 마을 안에서 또 하나의 사회적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은 보다 두터운 네트워크 안에서 존재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점은 어협조합원이 지속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 조합원들이 또 다시 "업자"와 같은 모임의 성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이 복합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바다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어로 소득을 높이고 시장경제 변동에 대처하며, 노동력의 상실을 방지하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제도로서 네야코는 토우시의 마을경제가 지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습으로 정착시켜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방어 사냥을 할 수 있는 어사들을 키워내는 실천이 의례에서 상징적으로 연행되

8) 지면관계상 ppt로 설명.

고 있다고 하겠다. 방어를 잡아먹는 사자와 사자를 잡는 어사의 관계 설정은 곧 어사는 사자와 동일 시되어 있음을 말한다. 사자가 방어를 잡아 먹길 바라는 모든 관람객들이 드디어 방어를 먹는 사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술과 돈을 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며, 풍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다 사냥을 지속해가게 되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자무(獅子舞)의 지속적 전승은 곧 마을에 머물며 어사로 성장하게 될 네야코들의 미래와 별개인 것이 아니다. 또 토우시의 풍어를 꿈꾸는 어사들의 바람, 곧 마을주민들의 바람은 의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며 네야코라는 관습적 제도로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5. 글로벌화와 생활방식의 지속적 권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지구적 확산은 문화적 동질화 및 획일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난민의 발생은 더 이상 환경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재편을 요구하는 압박이 생업의 위기를 통해 문화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전지구적 경제와 환경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을 압박하는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 어로를 전개하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전개양상은 어떠한가? 2005년 현지조사 이후 연구자는 때때로 마을을 방문하였으며 이때마다 그곳이본수산시장과 엔화의 변동에 따라 2005년짜가 줄어들거나 작업을 중단하고, 소라의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등 2음 지속가능가능한 압박하는 압박하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년로부 2을 하지 않고 있는 박하과 05년신의 지금 상황을“벗이 돈을 벌어준다”는 른 동료의 말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는 혼방식을 들이 하는 담화사 이“벗이 있어야 2을 한다”는 맥락을 따르면서도 그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어로환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벗이 돈을 벌어준다는 한 잠수의 말에는 한 달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물질이 아닌 다른 노동을 선택해야하는 잠수들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즉 불안정한 시장가격과 대일소비시장의 종속,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해양생태의 변동과 자원감소 등 잠수들이 일을 포기하는 데에는 스스로의 낮은 자긍심과 낮춰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생태적 압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는 의미에는 잠수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봄으로써 물질하려는 사람이 없는 사회적 상황, 그리고 산소통 없이 일하는 그들의 어로법이 주변 동료와 상호 의존해야 하는 조건을 함축하고 있었다면, ‘벗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은 물질을 포기한 동료의 부채를 경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잠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물질은 더 이상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전해주지 않으며 이에 물질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곧 잡아도 하루 일당이 보전되지 않으며 또한 잡으려고 해도 점점 잡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의 안정과 자원의 재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종으로 이탈하는 잠수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아마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앞서 본 어사들의 네야코 제도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보다 덜 영향을 받는 그들만의 전통적 힘을 발휘할 지도 모른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잠수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논의가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으로의 등재가 잠수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모색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의의 장(해녀국제학술대회)에 일본 미에현의 관련 학자들과 아마들도 함께 참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에스기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글로벌한 문화정책 및 전략에 대응한 아주 평범한 하나의 로컬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지역들이 지역간의

국경을 넘어 직접 연계하고 '해녀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재발견하며 유산등재 운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뜻하지 않게도 근대적 문화와 사회 개념에 대한 재고와 재편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上杉富之 2010). 이러한 지적은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교류와 연대의 양상이 근대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묶여 사고되는 사회와 문화의 틀을 뛰어 넘는다는 점에서 한일 두 지역의 해녀문화유산 등재의 움직임은 글로벌화에 대한 로컬적 대응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탈국경적 해양 세계의 네트워크는 자본주의시대의 새로운 양상인 것만도 아니다(床呂郁哉 1999). 한·일 양 지역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문화유산 등재화에 의한 사라져가는 문화의 '보존'이라는 목표 설정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연과 공생관계를 모색해 가는 생활방식의 지속성과 그리고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살아온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상호공생의 네트워크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아키미치 토모야(秋道 智彌), 2005, 『해양인류학』, 이선애 역, 서울: 민속원.
- 안미정, 2008, "제주 잠녀의 해양 채집어로와 지속가능성," <제41차 한국문화인류학회 국제학술대회, 사멸위기 문화유산의 현재와 대책>, pp. 122~142.
- 전경수 편, 1992,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 서울: 집문당.
- 최재율, 1976, "도서어촌의 사회구조 연구," 『지역개발연구』 12: 47~76.
- _____, 1996(1991), 『韓口農漁村의 社會學的理解』, 서울: 裕豊出版社.
- 한규설, 1993, 『공동어장과 어촌』, 서울: 참한.
- _____, 1996, 『어촌경제구조의 관찰』, 서울: 참한.
- 한상복, 1976,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8: 87~90.
- Han, Sang-Bok, 1976, *Korean Fisherma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宮本常一·中村由信, 1978, 『海女』, 東京: マリン企画.
- 大喜多甫文 1998, "わが國のあまの分布とその増減に關する一考察," 『漁業經濟研究』, 第24卷 第2號, pp. 61~77.
- 森 靖雄, 1994, "國崎の歴史," 『志摩の漁村』 愛知大學綜合郷土研究所研究叢書 9, 牧野 由朗 編, pp. 45~87, 東京: 名著出版.
- 床呂郁哉, 1999, 『越境: スルー海域世界から』, 東京: 岩波書店.
- 上村角兵衛, 1985, 『海女とみつもん』, 志摩: 水神タイプ.
- 鳥羽市總務課廣報係, 1999, <とば: 特輯 寢屋子物語>, no. 975.
- 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地域とくらし 第1集: 答志島 調査報告書>, 2005.
- 中田 實, 1994, "部落の共同體的性格," 『志摩の漁村』 愛知大學綜合郷土研究所研究叢書 9, 牧野 由朗 編, pp. 133~154, 東京: 名著出版.
- 澤入友美, 平山妙子, 鄭信智 외 7인, 2005, "海女という生きかた: 答志島 實習報告," 『地域研究年報』, 第2號, 赤嶺淳 編, 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pp. 83~110.
- 韓相福, 1991, "農漁村の通婚圏と初婚年齡," 『日韓漁村の比較研究』, 京都: 行路社, pp. 569~590.